

이호신, 반도의 숨결展

0... 늦게이 한국회회가 이호신씨의 3번째 개인전 「반도의 숨결」전이 오는 3일부터 인사동 덕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10년 가까이 국토 곳곳을 다니며 느낀 우리의 산하와 문화유적지를 전통 필묵으로 구사한 수묵담채화 36점이 선보인다.

다비장 가는길, 메주와 시래기, 운주사 천불전탑, 5월의 산유리, 태백산 정암사 등 이번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과거의 유물과 현재의 풍경을 연계하면서 우리시대에 필요한 어떤 정서를 환기시켜 주거나

새봄을 맞아 불교미술품이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대형기획전과 개인전을 통해 관람객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기행미술의 장르를 개척한 이호신씨의 「반도의 숨결」전과 광복50주년과 미술의 해를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한국현대미술50년전」 등은 미술 애호가들에게 모처럼 만나는 「좋은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자 주)

미술을 연재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안성금 「관음」등 내놓아

0... 한국의 현대미술 50년을 한눈에 볼수있는 「한국현대미술 50년전」이 지난 21일부터 이달 29일까지의 일정으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 대형전시회는 광복50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해 문체부와 일간오늘, 95미술의 해 조직위가 주최했다.

이중심의 「소」등 비중있는 화가·조각가들의 대표작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 7대 사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



◇불교미술계가 불기 지개를 켜며 개인전에서 기획전까지 불교미술품이 다채롭게 선보여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위는 「한국현대미술50년전」에 나온 안성금씨의 「관음」, 아래는 이호신씨의 「부석사」.

반야심경 '서예명품집' 출간 왕희지·추사등 필적 한눈에



〈반야심경〉을 쓴 서예 대가들의 작품이 한데 모아져 서예의 진수를 반야심경과 함께 볼 수 있게 됐다.

도서출판 청안이 최근 펴낸 「반야심경 명품집」에는 왕희지, 구양순를 비롯 추사에 이르는 10여명의 명인이 쓴 반야심경본을 모은 서예본, 이 책에 실린 서예가들은 서예의 성인으로 불리는 왕희지, 해서 최고의봉인 구양순, 장나라 제일의 심공이라 불린 등석여 등, 이 밖에도 명나라의 8대산인(八大山人)과 추사 김정희, 추사의 스승인 홍방강, 시·서·화·정각의 4절로 꼽히는 오창식의 글씨도 만날 수 있다. 또 장개석 정부의 감찰원장을 지냈던 초서의 명장 우우림의 필체도 실려있다.

◇왕희지가 쓴 반야심경 2백62글자중 「般若波」글자.

문화재 자료발굴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 교토대학이 소장 해온 자료를 수집 정리해 「조사문화재 자료」를 펴냈다. 오가와는 1916년부터 44년까지 건국의 사할린, 석탄, 불상, 범종, 궁궐, 관아, 향교, 공예품 등 1천2백47건을 조사해 4천4백37점의 사진과 탁본으로 남겼다. 이번 도록에는 전체 목록과 함께 9백64점의 사진과 탁본이 소개돼 있다.

문화재자료도 록 펴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며 각종 문화재 수리공사와 유적조사를 벌였던 오가와 게이치(小川啓吉)가 남긴 국내 문화재 자료들이 도록으로 묶여졌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불교미술품 "봄나들이" 한창

회화·조각·설치 등 작품 전시회 다채롭다

드러내 보이겠다는 뜻을 든 작가의 의지와 함께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미술평론가 유홍준씨(영남대학교 수)는 이씨의 작품들을 "이씨의 작품에서는 예술적 끼를 앞세우기보다 진실한 삶의 현장을 표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작품들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성금씨의 설치미술 「관음」이 전시돼 불자들의 눈길을 끈다. 안성금씨는 종교 대미대를 나와 활동중인 중견 작가로 이번에 출품한 「관음」은 설치미술이 갖는 입체감과 관음상의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불교미술계가 불기 지개를 켜며 개인전에서 기획전까지 불교미술품이 다채롭게 선보여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위는 「한국현대미술50년전」에 나온 안성금씨의 「관음」, 아래는 이호신씨의 「부석사」.



'만해 한응운' 무대선다

8일부터 3일간 고대 인촌기념관서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청이 마련한 만해 한응운 스님의 일대기 연극이 3월8일부터 3일간 고대 인촌기념관에서 공연된다.

성북구 관내 신명예술단이 꾸미는 이 연극 「만해 한응운」, 당시를 보았습니다는 공연까지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사대정신을 아릅다운 시로써 그릴 줄 알았던 예술가, 불교의 진정한 교리를 알았던 스님, 그리고 개인적인 번뇌와 갈등을 지닐 수 밖에 없는 한 인간으로서 만해 한응운스님이 주는 감동과 교훈을 여덟마당 22장면의 극중 극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노래, 춤, 풍물, 무대미술이 하나로 어우러져 펼쳐지는 「만해 한응운」 당시를 보았습니다는 박인배씨의 출연으로 8일 1회, 9일과 10일 각각 2회 총 5회 무료공연하고 3월 공연이후 전국순회공연을 계획중에 있다.

이번 공연을 마련한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만해스님이 말년에 주석했던 심우정이 성북2동에 있어 광복50주년과 3·1절을 기해 이 무대를 마련했다"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준비한 무대이지만 만해스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국'과 '인간적 삶'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정·일장스님 선회작품

0... 한국불교 선학기의 대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한라불교신문(대표 김승석)은 창간 6주년을 맞아 3월2일부터 6일까지 제주문화재단 전시실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초대전에는 무형문화재 석정스님을 비롯 일장, 성룡, 보하스님과 제주최고의 서예가 소암, 전각가 무형선생들의 작품 1백여점이 전시된다.

남궁산 목판화 장서표전

0... 자신의 장서(藏書)라는 표시로 책의 표지나 뒷면 또는

문화재소식

보존, 정비사업 추진 1억1천만원 투입

충남 청양군은 최근 각종 문화재의 훼손방지와 보존을 위해 대대적인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청양군은 총 사업비 1억1천2백만원(국비 3천7백만원, 도비 1천8백만원, 군비 5천7백만원)을 들여 6건의 문화재 보수및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군은 도지정 문화재인 정산면 남촌리 3층석탑을 보수하고 주면을 새롭게 단장하는 한편 정해사의 칠성각을 개·보수, 주민들의 정서순화및 무화공간으로 활용을 방침이다.

범어사벽화 단청 模寫보존

梵魚寺 대웅전(보물 제434호)과 이곳에 그려져있는 각종 벽화·단청등이 영구보존 가능하게 됐다.

부신군부군은 지난해 7월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문화재 공사 전문업체인 삼성건축사(소장 장승운)에 의뢰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梵魚寺 대웅전의 단청과 벽화문양에 대한 모사작업 및 건물 실측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벽화 단청문양 모사작업은 범어사 대웅전 외부 우측 바깥벽 단청의 불화 4점과 외부 포벽 전면의 10개소 배면의 10개소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사진촬영을 할 경우 색깔

불교문화계

찬불가 노래방 테일제작

불음보급회(회장 조영근)가 범회장소나 각종 모임에서 즐겨 부르는 찬불가 22곡을 모아 경음악과 노래테일로 제작했다. 「찬불가 노래방」이란 타이틀로 제작된 이테일은 「사홍서원」 「예불가」 등을 1개는 가사포함해 실었고 1개는 가사가 없는 반주만을 담아 찬불가부르기 쉽게 했다.

현대불교문화회로 개칭

불교문화포교원(원장 해관)의 큰스래

개원 1주년 기념법회

초의선원(원장 용운)은 오는 1일 오전 10시 초의선원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서는 초의선사의 선사상과 초의선사 다도관이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강연도 펼쳐진다.

(02)732-2317

한·일 문화재보호 연구·합의서 교환

김경호 문화재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오후 4시 니시카와 교타로(西川啓太郎·67)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장과 한·일 문화재보호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올해부터 5년간 계획으로 공동연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온도 습도 우량 비 분석 중량등을 측정하는 문화재환경 관측장비를 우리나라 일각까지 10층석탑등 양국의 주요문화재에 설치할 예정이다.

한·일 문화재보호 연구·합의서 교환

김경호 문화재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오후 4시 니시카와 교타로(西川啓太郎·67)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장과 한·일 문화재보호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올해부터 5년간 계획으로 공동연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온도 습도 우량 비 분석 중량등을 측정하는 문화재환경 관측장비를 우리나라 일각까지 10층석탑등 양국의 주요문화재에 설치할 예정이다.

마이산 천지탑 연대·제작자 '새학설'

정북 진안군 마이산 탑사(塔士)의 천지탑(天地塔)에 최근 그 기원연대와 제작자를 놓고 새로운 학설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마이산의 기이한 경관을 배경으로 하늘 높이 치솟은 기발한 형태의 천·지의 이 쌍탑은 그동안 20세기 초 이갑룡(李甲龍)씨가 축조했다는 설이 통설이었던 것을 이갑룡 거사가 중수한 탑이란 설도 제기되는 란이 일었던 것.

논란이 일자 진안군은 지난해 7월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에 학술용역을 의뢰, 마이산 탑사 조사단(단장 문명대)은 최근 이에대한 조사보고

인연달는 佛子님에게 불성을 전합니다

개가佛子 林泉화백 수행작품

## 진품 연화도 8폭 병풍

- 작품규격 및 특징
- 높이: 5자 5치(약 167cm)
- 폭: 12자(약 364cm)
- 재질: 고급스기묵·스모사 고급비단
- 포교료가 ₩ 42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티베트 스님 안기 수행작품

## 진품 만다라

- 작품규격 및 특징
- 규격: 가로 49.6cm 세로 56cm
- 재질: 고급스기묵·고급비단 3중 입체포구
- 규격과 작품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포교료가 ₩ 480,000

(클로버서비스) 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 분은 수신지기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문화공예연구원 (조계사 후문)

기획제작 三田佛事

■ 문의처 : (02)732-6095 - 6

불교전통포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